

현행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

이택영, 강대혁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Abstract

The Alternatives for the Current 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Licensing Examination

Lee, Teak-Young, M.P.E., O.T., Kang, Dae-Hyuk, M.Sc., O.T.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The first 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licensing examination was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n 1965. In 1998,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assumed responsibilities for the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icensing process based on current and valid standards for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The purpose of awarding license is to identify for the public those persons who have demonstrated both the knowledge and the skills necessary to provide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As an effort to develop, maintain, and defend the content validity of practice-based occupational therapy licensing examination,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sponsored and authorized the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analysis study in 2000. Based on the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analysis study, 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By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he 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Analysis in the USA, this article points out several problems concerning the existing 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licensing examination and suggests the alternatives that reflect current professional practice.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y, Licensing examination, Practice analysis

I. 서론

미국 작업치료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William Rush Dunton(1954)은 “Principles of Occupational Therapy”의 제1장 작업치료의 역사와 발전이라는 단원에서 우리나라의 작업치료역사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군의 감독하에 군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전상자가 늘어나면서 작업치료실의 규모도 크게 확장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록 이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작업치료의 교육과 작업치료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업치료는 목적이 있는 동작이나 활동을 선택하여 환자가 목적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며, 장애를 예방하고 행동을 평가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 상태를 경감시키고 잔존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사회적응을 도와준다(이재신과 김경미, 1997). 또한 사회적응을 통하여 사회의 한 일원이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활치료의 전문 분야이다(이미자, 1998).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이 처음 실시되었고, 그 후 1979년 최초로 연세대학교에 작업치료학을 교육하는 보건학과가 신설되었다. 최근 3년간 3년제 6개 대학, 4년제 5개 대학교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 한해에 3년제 10개교, 4년제 2개교가 신설되었다. 앞으로도 더 증가하리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난 30년간 양성된 작업치료사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1년 동안 배출되는 양적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양적증가는 국가시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사실 과거의 국가시험은 시험과 임상이 별개라고 인식 될 정도로 작업치료사의 직무수행능력 파악이 어렵다

고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변천과정과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의 최소교육 기준안(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By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과 미국 작업치료사 자격시험 출제 지침을 토대로 현행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최근의 작업치료 임상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국가시험 문항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본론

1. 한국 작업치료 국가시험의 역사

작업치료사의 국가시험이 시작된 것은 1965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나, 1969년 최귀자가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작업치료 면허를 취득하였다. 1969년에서 1982년까지는 9개의 수습기관을 통해서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총 17명의 작업치료사가 배출되었다(오윤택, 1994). 하지만 1979년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보건학과가 설립되어 4년제 정규교육을 마친 작업치료사가 1983년부터 처음으로 배출하게 되었다. 이렇듯 작업치료의 전문적인 교육이 시작되면서 작업치료사의 인원도 정기적으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의 인원이 배출되었지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소속으로 활동을 해야 했다.

1983년 한국 작업치료사 1차 모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1988년 작업치료사협회 추진위원회가 9월에 결성되었고, 급기야 199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대한 작업치료사협회를 발족하여, 초대 김순자 회장을 중심으로 작업치료사를 대표하는 공식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6대

제 회장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3년 10월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95년 9월 아시아 태평양 작업치료사협회(Asia-Pacific Occupational Therapy Congress)에 가입하였고, 1997년 6월에 협회신문 “작업치료”를 창간하였다. 의료기사법 제4조 2항에 의해 8개의 수습기관을 통하여 작업치료사를 배출하였던 제도가 폐지되어 해당(학)과를 졸업하여야만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이미자, 1998). 또한 1998년 5월 28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작업치료사 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 대표자 회의(Council Meeting)에서 49번째 정회원국으로 승인됨으로써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의 최소교육 기준안(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By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세계작업치료사 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의 정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의 최소교육 기준안(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By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을 충실히 따를 의무를 가진다. 교육 기준안의 제정 목적은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 요건을 제시하여 작업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58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다(WFOT, 1993). 교육기간은 최소 3년(약 90주) 이상, 3000시간의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과목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초과학과목

전체 교과목 중 1/6에 해당하는 500시간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과목의 분류와 교과목 명은 아래와 같다.

(1) 순수 기초과목(Pre-Clinical Studies)

- ① 해부학, 생리학(Anatomy and Physiology)
- ② 운동학(Kinesiology)
- ③ 심리학, 사회학(Psychology, Sociology)
- ④ 작업/자세 역학(Work Study and Ergonomics)
- ⑤ 보건/행정관련법(Social and Industrial legislation)

(2) 임상관련 기초과목(Clinical Sciences)

- ① 병리학, 임상신경학(Medical conditions with emphasis on neurology)
- ② 정형외과학(Surgical conditions with emphasis on orthopaedics)
- ③ 정신과학(Psychiatric Conditions)

2) 작업치료 전공과목

전체 교과목 중 1/2에 해당하는 1,500시간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과목의 분류와 교과목 명은 아래와 같다.

- ① 작업치료학 개론(Survey of Occupational Therapy)
- ② 작업치료학 특론(정신, 신체, 소아, 노인 작업치료)
- ③ 작업 수행 분석과 응용(Use of Activities as Treatment)
- ④ 작업치료 관리 및 행정(Principles of Management and Departmental Administration)
- ⑤ 치료적 작업과 적용원리(Therapeutic Activities and Techniques)

3) 임상실습

전체 교과목 중 1/3에 해당하는 1000시간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습 내용과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Full-time으로 하는 실습이 최소한 50 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 ② 감독자는 자격증이 있는 작업치료사 이어야 하며 1:1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정신장애와 신체장애 실습 시간은 같은 비율로 한다.
- ④ 학생은 실습기간 중에 작업 치료사의 감독 하에 실제 치료사가 담당하는 환자 모두를 독립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3. 2002년도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의 최소교육 기준 개정안(Revised 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02)

최소교육 기준 개정 취지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 교육기준 안의 기본 골격이 1958년도에 제정되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기존작업치료사 교육과정을 감독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임

상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유연성 있는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WFOT, 2002). 이 개정안은 올해 6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25차 대표자 회의(25th Council Meeting)에서 인준되어 향후 3년간(2005년까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분과위원회의 주도로 새로운 작업치료사 교육과정 인준신청 지원양식(approval process for application of WFOT approval of education program)을 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 내용과 교과목 비율(표 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인간-작업-환경의 역동관계와 작업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인간을 작업적 존재(작업 없이 존재할 수 없는)로 이해하며, 작업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데 역점을 둔다. 교육방법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론과 연구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둘째, 단순암기식 지식의 전달을 지양하고 작업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임상실습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졸업 후 준비된 초임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교과목 비율은 현행에 비해 작업치료 전공과목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기초과학에서 사회과학의 비중을 늘렸다. 하지만, 임상실습 시간은 현행과 동일하여 작업치료학이 임상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1. 교과목 비율

	현행	개정안
		1,200시간(40%)
기초과학	500시간(17%)	(자연과학, 사회과학 포함)
작업치료 전공	1,500시간(50%)	800시간(27%)
임상실습	1,000시간(33%)	1,000시간(33%)

4. 미국 작업치료사 시험 개발과정과 개정안

미국에서는 작업치료사 국가고시가 현재의 임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7년 내지 10년마다 국가고시 타당성 연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

국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관리위원회(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NBCOT)는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4,000명의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Registered; OTR)와 3,000명의 보조 작업치료사(Certified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t; COTA)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3,103명 응답)하여 미국의 작업치료사 자격시험이 현재 임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작업치료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 보완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였다(Dunn과 Cada, 1998; NBCOT, 1999). 미국 작업치료사 자격시험 출제 지침의 주요 보완 내용을 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을 작업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둘째,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작업치료 원리를 반영한다.

셋째, 최신의 이론과 현장에서 실시되는 작업치료를 반영한다.

넷째, 작업치료 수혜자들의 개인적 특성(연령별, 질환별, 문화/사회/심리적 환경)에 따른 작업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다.

다섯째, 작업치료의 핵심개념은 '작업'이어야 한다.

5. 현재 우리나라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개요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은 2002년 현재까지 29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1997년까지는 국립보건원에서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대한 시행을 맡아서 해왔으나, 한국보건직업인 국가시험원에서 1998년 9월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업무 일체를 이관 받아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시험에 관한 문항개발,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한국보건직업인 국가시험원, 1999).

국가시험은 1965년 1회부터 1981년 8회까지 필

기시험, 구술시험, 실기시험으로 시행하였으며, 1982년 9회부터는 1차 전공 필기시험과 2차 전공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차 전공 필기시험의 경우 1996년 23회까지는 작업치료학개론과 수예공작 2과목을 시행하였고, 1997년 24회에 일상생활동작을 추가하여 3과목으로 늘어났다. 1차 공통 필기과목은 해부생리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 의료관계법규의 3과목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차 전공실기는 1982년 9회부터 1995년 22회까지 일부 과목에서 출제하여 시험을 실시하였고, 1996년 23회부터는 모든 과목을 실기시험으로 통합하여 시행하였다.

초기(1982년 9회~1984년 11회) 실기시험의 경우 구술형식의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1985년부터 소위 '땡시험'인 4지선다형의 시간제한당 풀이방식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하였다. 1991년부터 현재의 국가시험 형태인 4지선다형 객관식 형태로 바뀌어 1, 2차 국가시험이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2년 현재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은 3교시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표 2), 시험과목은 1997년 이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한국보건직업인 국가시험원, 1999).

과거의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은 문항개발 및 출제자 선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970~1980년대 초기 국가시험 체제에서는 공통 필기 과목의 경우에는 기초의학 의사, 해부병리교

표 2.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 (2002년 현재)

교 시	시험 과목	문항수
1교시	의료관계법규	20
	공중보건	20
	해부생리	35
2교시	수예 및 공작	15
	작업치료학개론	80
	일상생활동작	30
3교시	실기	40

수, 보건 및 병원행정 교수, 보사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고, 전공필기와 실기의 시험문제 경우에는 재활관련 의사(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물리치료과 교수들에 의해 개발되고 출제가 이루어졌다. 그 후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발족하기 전까지인 1980~1992년까지 전공필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과 교수에 의해 문항개발과 출제가 되었다. 그 당시 국립보건원에서 물리치료사협회와 물리치료교수협의회를 통하여 국가시험 문제를 의뢰하여 문항개발과 출제를 하였다. 그러나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발족 이후부터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출제 의뢰를 하여 국가시험 문제가 개발되었고 출제되었다. 대부분의 실기 문제와 필기문제의 개발은 작업치료사와 작업치료(학)과 교수들에 의해 개발되고 출제되었다. 국가시험 출제에 대한 출제자 선정 위원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III. 결 론

1. 현행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문제점

첫째, 현재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선정 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타당성 있는 국가시험과목의 선정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둘째, 국가시험 과목 당 문항수의 배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작업치료사의 직무 영역별 과목이 정해지는 경우,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항수의 배당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작업치료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직무영역의 빈도와 중요도를 분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비전공자(의사, 물리치료교수 등)에 의해 개발된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작업치료 임상현실에 근거한 문제 해결형 문항의 개발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작업치료사로서 임상에 종사한 전문가들에 의한 문항 개발이 시급하다.

넷째, 필기로 실시하는 실기평가의 모순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실습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통일된 임상실습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실습 후에 치료사에 의해 실습결과를 평가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잘 준비된 실습체계와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과목으로 인하여 시간과 내용의 제한으로 단순 암기 문제의 출제가 높은 빈도를

표 3.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출제자 선정

교 시	출제자			
	1970~1980	1981~1993	1994~1999	2000~2002
1교시	기초의학교수 해부병리교수 보건행정교수 보사부공무원	기초의학교수 재활의학과전문의 보건행정교수	기초의학교수 보건행정교수 물리치료교수	기초의학교수 물리치료교수 작업치료교수
2교시	재활관련전문의	재활의학과전문의 물리치료교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교수 작업치료교수 작업치료사	작업치료교수 작업치료사
3교시	재활관련전문의	재활의학과전문의 물리치료교수 작업치료사	작업치료교수 작업치료사	작업치료교수 작업치료사

차지하며,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과목별로 출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작업치료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일하여 국가시험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최신 경향의 작업치료 이론 등의 반영이 매우 미흡하다. 세계는 작업과학의 출현과 환자중심 지향의 치료 접근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지금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나 현 국가시험은 그 발전 속도를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어, 최신 경향의 문항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다.

일곱째, 현행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은 임상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초임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자세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면허증 취득 후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2. 미래 지향적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

작업치료학은 임상 전문가인 작업치료사가 철학적 배경과 이론적 바탕을 토대로 임상에 적용시키는 응용과학이다(Creek, 1990). 따라서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은 작업치료사로서 실제 임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임상과의 긴밀한 연계성은 학문의 발전과 임상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00). 본 연구자들은 새로운 국가시험 과목안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항 개발 지침을 제안한다.

첫째,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의 최소교육 기준안에 근거하여 개발한 교과 과정을 토대로 그에 따른 충실한 이론학습과 임상 실습을 통하여 작업치료사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과 태도를 익혔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주력

한다.

둘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학과목중심의 문항(단순 암기형) 출제를 지양하고 작업치료사의 직무영역별 문항(문제 해결형)을 출제함으로써 작업치료 원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임상 현실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셋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문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제 임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기술과 태도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여 준비된 초임 작업치료사를 선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작업치료사를 위한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의 최소교육 기준안이 제시한 권장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국내 작업치료학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오윤택. 한국작업치료의 역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94;2:63-71.
- 이미자. 한국작업치료의 현황과 대안.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98;6:93-105.
- 이재신, 김경미. 작업치료. 서울, 정담출판사. 1997.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현행 국가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16개 직종을 중심으로. 1999.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작업치료사 직무 분석. 2000.
- Creek J. Occupational Therapy and Mental Heath. Edinburgh, Churchill Livingstone. 1990.
- Dunn W, Cada E. The 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analysis: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mpetence. Am J Occp Ther. 1998;52:721-728.
- Dunton WR. History and Development of

Occupational Therapy. In: HS Willard, CS Spackman eds. Principles of Occupational Therapy. 2nd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 1954.

The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NBCOT). Official Study Guide for the Occupational Therapist Registered (OTR) Certification Examination. 1999.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 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1993.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 Revised 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02.